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매진'

김양원 부시장 등 시 간부공무원들 정부 부처 방문해 현안 반영 설득

중앙정부부처의 예산편성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 10여명은 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 전주시의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사업은 △전주전 수계 치수 안정화 △전주중물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악취 포집구역 확충 △안전공원 조성 등 생태·환경분야 사업들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날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이어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최고한도

액을 미리 통보하기 전인 오는 20일 까지 10일간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방문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찾아갈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 설득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향후 국가예산 반영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각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보강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별 예산편성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는 예산이 과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주시장은 "정부의 예산



김양원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 10여명은 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 전주시의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편성단계에서 우리시의 관계부처 국·과장과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 한 만큼 집요하게 방문 설명하고 경

'전주 특례시 지정 기원 담아'

전주시의회 최훈·성철은 주무관 점심시간 즉석공연

벚꽃 잎과 봄비가 흩날리는 전주시 청 민원실 앞에서는 봄을 만끽하는 버스킹이 한창이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이~' 이 가사는 유명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엔딩'의 한 소절이다.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최훈 주무관과 성철은 주무관이 점심시간마다 꽃그늘 아래서 즉석공연을 펼치며 부르는 노래다.

이들은 벚꽃을 소재로 한 서너곡을 매일 열창한다. 물론 봄마다 사람 받는 노래 '벚꽃 엔딩'도 포함된다.

최 주무관은 전자피아노를 치고 미혼인 성주무관은 옛된 목소리로 화음을 싣는다. 두 사람이 공연을 시작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기원하는 것과 함께 일상에 지친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봄의 여유를 느껴보게 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한 달여를 준비한 끝에 이날부터 벚꽃 공연을 시작했다.

민원실 앞 공연장에서 70여명의 관객들은 노래가 끝날 때 마다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 꽃그늘 아래 무대는 피아노 선율에 맞춰 벚꽃 잎이 흩날렸다.

최 주무관은 "우리의 열정이 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꽃처럼 특례시 지정의 환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공연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검찰, '수십억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학법인 압수수색

전북도교육청 중간 감사결과 발표 따라

검찰이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 수수와 함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전주의 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전주시 한 중학교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압수수색은 지난 3일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

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시설 공사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20억 5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

을 받고 있다.

이사장은 중학교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설치,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 1억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학교 설립자 지시로 허위회의를 작성해 임원의 임명 등 중요사항을 통과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학교법인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허위교직원을 등재한 뒤 인건비 등도 편취했다.

교육청 감사과는 이 같은 비리에

기간적으로 연루된 대상자만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종합세트인 W사학법인을 해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 오거리 주차장 보수 공사

전주시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로 인해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 오거리 공영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2층 진입 경사로 철관 사이의 벌어진 틈을 보수하고, 차량 통행로 바닥면의 지지부를 보강한다.

앞서 오거리 주차장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오거리 주차장 시설 전반에 대한 보수를 추진할 전망이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자, 강원 산불 피해 지원 나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9일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시 옥계면 크리스탈 밸리센터 등 4개소를 찾아 화재로 불의 피해를 입은 주민 70여 명에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생필품 지원은 전주시가 지난 8일 담요 등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를 찾은 지 불과 하루만이다.

도시재생 전략 수립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전주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응할 전주형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었다.

시는 9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도시재생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했다.

최날 도시재생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방침에 맞춰 전주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과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태평2·다가지역'과 '인후·반촌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지난 2016년 수립된

전주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3개 권역 12개 활성화지역을 3개 권역 18개 활성화지역으로 세분해 6개 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4월 중 전주시의회 의결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북도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승인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예정지역 태평2·다가지역과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발표와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 활성화계획안은 완산구 태진로 15-14일원(12만1640㎡)과 완산구 반촌로 32 일원(91,165㎡)을 대상으로 △낙후된 기초인프라 및 생활 SOC 정비 △노후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과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와 자매결연

전주시의회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는 9일 시의회에서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전주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과 이재관 전북지구 총재 등 양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 등은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봉사사업을 추진

하는 등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매결연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의회 의원들의 지역 단위클럽 명예회원 입회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병술 의장은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발전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국제라이온스협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선미촌, 문화재생 상징 '꽃심마을'로 만든다

전주시, 문체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에서 문화예술마을로 변화중인 서노송에 솔촌을 문화재생의 상징공간인 꽃심마을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9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을 확보, 이곳을 중심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살리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시는 원도심의 대표적인 쇠퇴지역이면서 현재 전주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인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사업계획 수립,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해 문화적 공동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마을문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실태를 확인하고, 외부 인문·예술단체와 지역주민 참여 문화활동을 지원하거나 인문·예술 단체 및 개인의 선미촌 이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문화적 프로그램의 경우, 고흥자·저소득층 중심이라는 지역특성과 선미촌의 문화자원 등을 고려해 인문·예술 기반의 주민 주도 문화적 가드닝 교육과 개인 및 공동 정원 조성, 시민장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문화적 공간 조성의 경우, 시는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마을 상징공간인 '마을 숲'을 조성하고 기존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을 연계하는 문화적가드닝으로 골목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2월까지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해 전주문화재단과 물결서사(서노송동 선미촌 입주 책방), 서노송동 주민협의체와 함께 전주주민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의 목표를 마을 스스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재생과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목표는 마을 스스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재생과 활성화가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